

화순초, 늘봄학교 연계 '디지털 새싹 캠프' 3월 프로그램 운영

5학년 학생 대상, 디지털 역량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의성 발휘 및 미래 구축하기 위한 수업 내용들로 꾸려져

화순초등학교는 초등 늘봄학교 연계로 3월 16일~17일, 양일간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프는 5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밀도 있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을 중심으로 생활 속 인공지능을 체험하며,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3월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코딩과 AI윤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글로벌 이슈를 다룸으로써 5학년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게임 창작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하기,

메타버스 월드 창작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만들기 등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수업 내용들로 꾸며졌다.

학생들은 그동안 학습한 코딩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가능경영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민주시민의 모습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주 코딩프로그램으로 활용된 레드브릭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행동코딩을 체험하였다. 코딩 가이드 역할로 워크북과 함께 또래 협력 학습이 진행되어 학생 모두가 자율적,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SW·AI가 가진 선한 영

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4개국 언어 인식이 가능하고 음성 인식한 언어를 42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캠페인 활동도 이루어졌다.

화순초는 3월 프로그램에 이어 매월 지속적인 디지털 새싹 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SW 교육과 AI에 대한 소양을 넓히도록 힘을 계속 배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환경 이슈를 SW와 AI로 살펴보고 해결하는 코딩 과정을 배우게 되어 의미있었다."라며,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배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OO 답임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경험과 배경지식을 종합하여 SW와 AI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며 "지속적이고 더 많은 학생이 게임 창작을 통한 환경보호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운영실 화순초등학교 교장은 "SW·AI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신장하고, 지속가능경영목표(SDGs)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히고, "학생들의 미래 디지털 역량을 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보성 용정중, '좋은 수업 협약식' 개최



보성 용정중학교는 지난 17일 좋은 수업 협약식을 개최 하였다.

용정중학교에서는 매년 3월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한 '좋은 수업 협약식'을 진행한다.

좋은 수업 협약식은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데, 1시간은 학급활동, 1시간은 전교생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학급활동 시간에는 수업에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학생과 교사 간의 존중과 신뢰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후 전교생과 전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좋은 수업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약속과 다짐'을 낭독하고 서명한다. 이 협약서는 1년 동안 각 학급에 비치되어 학생과 교사에게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보성=김복순 기자

해남발명교육센터, 메이커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해남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는 지난 17일 전남 13개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실무사들을 대상으로 메이커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내 물건을 직접 실현시

전남 13개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실무사 대상

키는 메이커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발명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원목 서랍장을 직접 만들어본다는 점에서 전남메이커교육 담당 실무사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나무를 재단하고 보다 편리하고 활용도 높은 나무의 서랍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활의 과학화와 창의적인 생활인이 되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메이커교육 역량강화 연수에 참가한 한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주변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발명 공작을 통해 작품의 원리를 알고 직접 고안하며 제작해보는 활동이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장 조영천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해남교육이 발명, 과학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여수여문초, '전남 늘봄학교 시범운영'

여수여문초등학교는 올해 '2023. 전남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후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지원하는 초1 에듀케어 교실을 운영한다.

정규 수업을 마친 1학년 학생(14명)은 매일 2시간씩 미술, 놀이수학, 창의요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에듀케어 자원봉사자 1명을 위촉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안전한 하교를 지원한다.

지난 16일에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특별지원관,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 여수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문정주, 담당



장학사 그리고 학교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전남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여수여문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김현근 기자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찾아가는 도서관 이용법 교육' 운영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초등학교 26개교 대상 실시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20일부터 4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초등학교 26개교, 전 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이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새 학기 맞이 책을 가까이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료 찾는 방법을 익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도서관 이용법과 그림책 놀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교도서관을 적극 이용하면서 책과 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올해 3월 학교도서관지원팀 신설로 다양한 독서 인문 프로그램과 학부모 독서교육 자료집 발간, 관계자 실무 연수를 통해 동부권역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전남교육' 실현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